

지역 소식통

제18회 고창예술제 성료

고창군 예술인들의 한마당 큰 잔치인 제18회 고창예술제가 지난 28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사)한국예총고창지회(회장 박종은)가 주최하고 국악·문인·미술·음악·연예인협회가 주관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국악협회의 판소리공연, 문인협회의 시낭송, 연예인협회의 색소폰앙상블 음악협회의 피아노연주 등이 펼쳐졌다.

특히 고창 출신 가수 김현이 부르는 '고창에서 왔어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웃음과 활기를 선사했다. 또 문화의전당 전 시설에서 오는 11월2일까지 미술협회 회원전과 문인협회 시화전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예총 고창지회 박종은 회장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제를 통해 예향 고창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벽화 그리기 체험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3~28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연령도래 아동 및 부안여고 E&H 동아리 15명과 함께 '즐거움 그림 놀이터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아동 및 종결아동, 부안여고 E&H 동아리학생들과 함께 예술터치기 전문강사를 초빙해 '도심속의 작은 숲'이란 주제를 가지고 벽화 그림 그리기를 실시했다.

참여 아이들은 오손도손 서로 애기도 나누고 선배들에게 학업에 대한 궁금한점 등을 상담 받으며, 드림스타트 건물외벽을 곱게 채색했다.

이번 벽화그리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답답했던 생활을 벗어나 함께 협동하며 한마음으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완성된 벽화를 보며 애착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GMO경각심 높인다

유전자변형농산물

고창군, 다음달 11일 재배 금지·안전관리 선포식 전국 최초사례... 건강한 먹거리 군민 공감대 형성

고창군이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금지 및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선포식을 연다. 전국 최초 사례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1월11일 제22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금지 및 안전관리 선포식'을 연다.

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

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축하영상 촬영, GMO공 터프리기 등의 퍼포먼스와 마을이장단의 GMO재배 금지 서명서 전달, 유기상 고창군수의 토종종자 전달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토종 작물의 퇴화와 계속되는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행정과 지역농민들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2월 전복 지자체 중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지난 26일 제31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안군, 미스변산 수상자 관광홍보대사 위촉

부안군은 지난 28일 제31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안의 관광 명소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려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던 미스변산 선발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일 부안 스포츠파크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준수하에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위촉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 변산진 채수민, 선 정인우, 미 서보민, 전북도인일보 박아람, 더마비드와 장품 이지혜, 제일건설 송성경, 부안잡방 안소희 양 총7명에게 부안군 관광

홍보대사 메달을 수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변산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부안군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미스변산 입상자 7명은 변산해수욕장, 낙조공원, 줄포만갯벌 생태공원, 개암사 등을 돌며 부안군 관광 홍보영상 촬영을 진행해 관광홍보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이들은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써 온라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부안군 각종 행사에 함께해 부안군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가을 단풍철 관광지 방역 관리 철저

내장산 발열점검소 등 설치 워크스루 방역소독장 운영

정읍시가 절정을 앞둔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나섰다.

시는 대표 관광지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발열점검소와 워크스루 방역소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연자교와 내장산 매표소 사이에 발열점검소를 설치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안정에 효과가 큰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 워크스루 방역소독장 2개소를 추가 운영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과 함께 라벤더 향기로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기분이 상쾌해졌다"며 느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관광지 방역 관리



정읍시는 대표 관광지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발열점검소와 워크스루 방역소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요원 22명을 선발해 마스크 착용과 우측통행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가 큰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내 주차를 금지하고, 매년 재 주차장과 제5 주차장에서 월령교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했다. 또, 내장산 집단상가지구의 식당·상가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와 살균 소독제를 지급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코로나19의 지역감염과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분주'

권익현 부안군수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며 2021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 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문화예산과 등 주요부서를 차례로 방문하며 동화농민

혁명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 기념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국비 221억과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캠퍼리의 기반조성을 위한 직소천 안전이영장 조성사업 75억 등 2개의 국비사업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당 국가예산 사업이 부안군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군수는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사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발로 뛰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서관 다문화 바리스타 과정 마무리

정읍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다문화 바리스타 과정을 지난 28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바리스타 과정'은 정읍시가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1기와 2기 두 번에 걸쳐 약 5개월 동안 운영됐으며, 20시간의 필수 교육 시간과 필기시험을 거쳐 휴카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커피에 대한 기초지식과 라떼아트, 사이드 메뉴 만들기 등의 실습 과정으로 커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

핀 등 이주여성 20명이 참여해 총 14명의 다문화 여성이 휴카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로서 경력을 쌓은 다문화 여성이 직접 카페를 창업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14명의 다문화 여성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커피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정읍시 도서관사업소는 지역 모든 계층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